

서리가 내린 듯한 멜란지

멜란지(mélange)라고 함은 섞여있다고 하는 의미이다. 멜란지 그레이라고 하면 그레이로 필염(piece dyeing, 원단 제작 후에 염색 과정을 진행하는 염색법)한 그레이도 아니고, 그레이 염색사로 제작한 옷감의 그레이도 아니다. 다소 떨어져서 보면 그레이 단일 색으로 보이는데 가까이 잘 살펴보면 그레이가 아닌 색이 섞여 있다. 멜란지 그레이를 표현하는 옷감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① 서로 다른 색으로 염색한 단섬유를 그레이로 보이게끔 섞어서(혼색) 제작사를 만들어 이것을 사용하여 제작한 옷감. 이렇게 혼색하여 얻은 실을 상강사(sprinkly colored yarn)라고 부른다. 상강사에는 백색, 그레이, 흑색의 섬유를 혼색하여 얻은 그레이로 보이는 실이 있다. 이것을 프로스트사(frosted yarn)라고 한다. 그런데 멜란지라고 하는 까닭은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의 섬유를 혼합하여 그레이로 보이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빨강과 녹색이라고 하는 상태다.

② 백색의 표백사와 흑색의 염색사를 꼬아 합하여 한 올의 꼬인 실로 한 것을 사용하여 짠 옷감

③ 백색의 섬유와 흑색의 섬유를 혼합하여 펠트로 한 것

④ 표백사와 검정 실을 교직한 옷감

염색성이 다른 섬유의 혼방사 또는 혼섬사, 복합사를 사용한 원단을 필염에 의하여 흑색, 그레이 등으로 나뉘어 염색된 후염 선염의 기법에 의한 옷감 등이 있다.

상강사라던가 멜란지사 또는 묵사를 사용하여 옷감을 만드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짧은 기간에 옷감을 만들고 싶다면가 값싸게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시네마(cinema)조, 멜랑지조 등 조가 붙어 있는 옷감은 선염옷감이 아니라 필염에 의한 후염옷감이다. 즉, 선염을 닦았다는 뜻이다. 목사(mock yarn)라 함은 서로 달리 염색한 실을 꼬아 합한 실을 말하고 확실하게 그것과 유사한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부르는 방법이다. 선염을 닦은 것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염색성이 다른 2종류의 섬유 또는 제직사를 사용하여 흰색 원단을 만들어 놓는다. 단납기라던가 중납기에 이르러 필염하여 필요로 하는 색상의 옷감으로 만든다. 오늘날 화학섬유를 이용하여 선염을 닦은 옷감을 만드는 것이 주류이다. 한가지 간단한 예를 들면, 경사에 면사를 사용하고 위사에는 나일론이라던가 폴리에스터 스판덱스 커버링사를 사용하여 제직한 후에 염색공정에서 반응성염료 등을 사용하여 면사부분인 경사만을 염색하는 경우에는 선염사를 사용한 데님조의 원단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원단은 본래의 사염물인 데님과 비교하여도 그 차이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볼만을 느끼는 일조차 없다. 이와 같이 각각 다른 색으로 염색하는 것은 제직사의 염색성 차이를 이용하여 각각 다른 색상의 종속이 다른 염료를 사용하여 이욕법 또는 일욕법으로 염색하여 색상이나 무늬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염색성의 차이는 섬유의 종류가 다른 점 이외에도 같은 종류의 섬유일지라도 예를 들면 cation dyeable polyester와 같이 염색성이 다른 점을 이용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주로 스트라이프, 체크 등의 무늬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